Harper's BAZAAR

www.imagazinekorea.com
값 6,900원

전현무 vs 홍진호
겨울왕국의 왕자들
바네사 파라디의 러브송
반려견 프리미엄
뜨는 거리, 낙성대
위조품의 가려진 세계

The Stylists

패션 아이콘을 만들어내는 이미지 메이커
36명과의 스타일 토크

이보영의 넥스트 스테이지
한없이 투명에 가까운 김고은
청색 시대를 살고 있는 지창욱

Beauty Talk

다리아 위보이의 아름다움
화이트닝 열전, 비타민 화장품
'피붓결'을 위한 어드바이스
나만의 향수 만들기
립스틱 트렌드, 댄스 테라피

1등이 되고 싶지 않은 괴짜
PAUL SMITH

COMPLIMENTARY COPY
청 kio

BEST SPRING LOOKS

PLUS; 알렉사 청, 레니 크라비츠, 마리나 아브라모비치
줄리언 오피, 메간 콜리슨, 닥터 로마넬리

Harper's BAZAAR TALK

반전이 있는 얼굴

줄리언 오피가 빚어내는 현대인들의 자화상에는 반전이 있다. 간결하고 단순하지만 놀랍도록 사실적이며, 과거의 미술 양식을 근간으로 팝아트의 계보를 잇는다.

사진/Kim Jeongho

"우리는 매일 수많은 사람들을 만난다. 하지만 스쳐 지나가는 그들의 얼굴을 제대로 기억하진 못한다. 눈썹이 짙은지, 코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지 못한다. 내 작업은 뚜렷한 형태 없이 기억되는 사람들을 그린다는 점에서 사실성과 현실성을 반영한다."

1960년대 앤디 워홀에 의해 예술이 대중문화의 중심으로 자리 잡은 이후 팝아트 작가들이 쉴 틈 없이 등장했다. 영국 런던 출신의 작가 줄리언 오피(Julian Opie)도 그들 중 한 명이다. 창작자의 내면을 외면화한 수많은 작품 세계들이 유성우처럼 쏟아지는 가운데서도 줄리언 오피의 존재감은 뚜렷하다. 검고 굵은 윤곽선과 선명한 색채, 픽토그램처럼 단순하고 명쾌한 그림체는 그가 어떤 장르와 주제를 만나도 자신만의 개성을 뚜렷이 각인시킬 수 있는 안장과도 같다. 줄리언 오피는 드로잉이나 컴퓨터 작업을 통해 얼굴과 몸의 특징을 고도로 단순화시키는 방식을 기반으로 페인팅, LED 설치작품, 조각, 동영상 등으로 작품세계를 확장해나가고 있다. 실제로 그의 이름은 모르더라도 눈에 익은 작품들은 꽤 많다. 음악 팬들은 그에게 유명세를 안겨준 영국 록 밴드 '블러'의 2000년 앨범 <더 베스트 오브>의 표지를 기억할 것이며, 클래식 마니아들은 영국 로열 발레단의 공연에 사용된 작품을 떠올릴 수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서울역 부근을 지난 적이 있다면 서울스퀘어 빌딩 전면에 설치된 초대형 LED 작품 '걸어다니는 사람들'을 한번쯤 본 적이 있을 테다. 다양한 분야에 걸쳐 강력한 대중성을 확보하고 있는 줄리언 오피가 서울을 찾았다. 소격동의 국제갤러리에서 3월 23일까지 열리는 개인전에서 서울의 행인들을 다룬 회화 연작과 사람의 두상을 형상화한 거대한 조각 작품을 새롭게 선보인다. 관람객들 중 누군가는 인물의 이목구비가 과감히 생략되거나 단순화된 작품에서 현대인의 몰개성과 획일화를 읽어내고, 비슷한 얼굴이지만 각각 다르게 묘사된 옷과 걸음걸이, 포즈에서 개성의 본질에 대한 의문을 느낄 수 있겠다. 반면 도시인이 주인공이란 점에서 친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줄리언 오피는 "전시를 통해 사람들에게 특별한 메시지를 전하려는 의도는 없다"라며 "난 정말로 미술이 좋다. 작품이 완성되면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고, 전시를 찾은 관람객이 봐줄 때 비로소 작업이 마무리된다"고 전한다. 미칠 정도로 좋아해서 하는 일에는 최고가 될 수밖에 없다는 진리가 그의 작품 속에 명쾌하게 담겨 있다.

전시를 앞두고 서울의 거리를 걷는 사람들을 재현한 작품들을 선보인다는 소식이 화제가 됐다. 어떤 계기로 만들게 됐나? 내게 전시란 최신작을 보여주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내 관심사가 무엇이고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려 한다. 이번 전시를 앞두고 무엇을 보여줄 수 있을까를 스스로에게 질문했고, '워킹(Walking)' 연작을 떠올렸다. 거리를 걷는 사람들의 모습을 소재로 한 작업으로 영국 런던의 행인들을 모델로 한 것이 시초였다. 그렇지만 서울에서 열리는 전시에서 런던 사람들을 보여주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한국 사진작가의 도움을 받아 작업을 진행했다. 구체적인 디렉션을 전달했고 그가 길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을 찍은 사진 3천여 장을 보내왔다.

사진으로 접한 서울 사람들에 대한 인상은 어땠나? 신사동을 찍은 사진을 받아보고 모든 사람들이 옷을 매우 잘 입어서 흥미로웠다. 다들 비주얼 룩을 구축하기 위한 프로젝트라도 하는 느낌이었다. 모두 휴대폰을 들고 있거나 액세서리가 많은 것도 인상적이었다. 런던의 우중충한 분위기와는 너무 달랐다. 그래서 여태 해온 작업들과 다르게 표현하게 됐다. 런던 작업이 채색이 없고 그림자가 많다면 이번에는 조금 더 선명한 작업을 했다. 그림자를 지우고 밝은 컬러를 썼으며 액세서리와 같은 디테일도 그대로 묘사했다.

당신의 설명대로 신사동은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의 집결지로서 그곳을 오가는 사람들의 패션이 인상적일 수 있다. 사당동을 주목한 이유는 무엇인가? 난 내가 살고 있는 동네를 중심으로 소재를 찾곤 한다. 알다시피 런던에는 비가 많이 내린다. 그래서 빗속에서 우산을 쓰거나 움츠리고 걷는 사람들을 소재로 작업을 하기도 한다. 이와 비슷한 컨셉트의 작업을 서울에서 해보고 싶었다. 하지만 서울에서는 비가 많이 오는 날이면 거리에 사람들이 드물고, 가랑비가 내리면 우산을 쓰거나 안 쓰는 사람들로 뒤섞였다. 비 오는 런던 거리의 모습을 지닌 동네를 겨우 찾아냈는데 그곳이 바로 사당동이었다. 그래도 런던만큼 분위기가 우울하지 않아 이 작품에도 밝은 컬러를 사용했다.

작품 속 인물들은 경쾌한 컬러와 역동적인 포즈로 시선을 사로잡지만 얼굴

사진/ Kim Jeongho(공간), Kukje Gallery(작품)

은 집단성의 초상이라 할 수 있을 만큼 이목구비가 없거나 표정이 단순하며 다채롭지 않다. 그 의도가 궁금하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사람들을 만난다. 하지만 스쳐 지나가는 그들의 얼굴을 제대로 기억하진 못한다. 눈썹이 짙은지, 코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지 못한다. 내 작업은 뚜렷한 형태 없이 기억되는 사람들을 그린다는 점에서 사실성과 현실성을 반영한다. 또한 내 그림에는 많은 정보들이 담겨 있다. 대략적인 나이와 신체 사이즈를 알 수 있고, 옷차림을 통해 사회적 지위를 유추할 수 있다.

어떤 이들은 현대미술 작품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곤 한다. '아, 나도 저거 할 수 있어'라고. 단순한 선과 뚜렷한 색깔만으로 구성된 당신의 작품도 누군가에게 이 같은 생각을 갖게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당신의 생각이 궁금하다. 많은 사람들이 예술작품을 감상할 때 주제가 무엇인가를 파악하려고 노력한다. 제목이 '신사동'이라고 하면 그것에만 집중해서 본다. 내 작품은 그런 것과 상관이 없다. 그렇다고 내가 패션에 큰 관심이 있는 것도 아니다. 사람들이 입은 옷의 브랜드는 중요하지 않다. 특정 장소와 패션, 색깔은 작업에 필요한 요소일 수 있지만 핵심은 아니다.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수학적 알고리즘이다. 행인들을 묘사한 작품을 만드는 과정은 꽤 복잡하다. 수천 장의 사진에서 인물들을 무작위로 골라 조합한다. 각각의 인물들을 악보의 음표라 생각하고 캔버스에 몇 명이나 채울 수 있는지, 남녀의 비율, 어깨의 높이 등을 꼼꼼하게 계산한다. LED 작품을 만들 때도 마찬가지다. 인물들이 걷는 속도와 방향을 분석한다.

이번 전시에서 남자와 여자의 두상을 3D로 작업한 대형 조각도 새롭게 선보였다. 평면 드로잉 작업을 그대로 옮겨 확장해놓은 것 같다. 같은 동네에 사는 남매를 형상화한 작품이다. 머리를 고정해 스캐닝을 하고 레진에 프린트하거나 컴퓨터를 통해 커팅을 했다. 3D 조각 작업은 3년 전쯤부터 시작했는데 주로 작은 사이즈로 만들었다. 두상 조각을 만들게 된 건 고대로마시대의 조각을 참고했다. 앞서 이야기했듯 주제와 소재를 주위에서 찾는데 사람과 자연뿐 아니라 문화도 해당한다. 최근에는 고대미술을 연구하면서 과거에는 어떤 방식으로 작업을 했고, 어떤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봤는지를 새롭게 파악하고 있다. 그것들을 내 작업과 어떻게 연관 짓고 관객에게 보여줄지를 고민한 결과물이 이번 전시라 할 수 있다. 청바지를 입고 서 있는 여성을 그린 그림은 과거 왕이나 왕비에게만 허락했던 전신 초상화와 같은 구도이며, 행인들을 소재로 한 '워킹' 작품은 인물들을 옆모습으로 그린 중세 프랑스의 벽화를 닮았다.

Walking in Sinsa-dong in the rain, 2014

Walking in Sinsa-dong 2, 2014

당신은 현대미술의 대표 장르인 팝아트의 계보를 잇고 있다. 고대미술에 흥미를 느끼게 된 이유를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인간의 삶은 역사의 표면 위에서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그 표면 밑에는 엄청난 역사들이 깔려 있는데 그것들을 지금의 삶과 연관 지어 생각하지 않거나 배우려 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물론, 예술을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심지어 옷을 입는 방법조차 역사와 연결되어 있다. 우리가 뭔가를 본다고 하지만 보는 것을 배우고, 행동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미술에서의 창작 과정도 마찬가지다. 학교에서 근현대 미술 중심으로 배웠지만 나이가 들면서 현대미술과 고대미술의 작업들은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최근에는 로마시대의 모자이크 작품에 관심을 갖게 됐다. 모자이크는 오래된 양식이지만 디지털 사진의 픽셀과 같은 개념을 갖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

전시를 앞두고 작품의 설치 위치를 일일이 챙기고 세부적인 부분을 확인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전시 준비 또한 인고의 과정을 거쳐서 완성하는 예술이라 생각하는 건가? 난 정말로 미술을 좋아한다. 중독된 것처럼 푹 빠져서 일을 하고 작품이 완성되면 사람들에게 빨리 보여주고 싶다. 작업실이 너무 지저분해 내가 만든 작품을 제대로 감상하지 못할 지경인데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내 작업을 선보이게 된다는 점이 큰 영광이자 기회다. 간혹 어떤 작가들은 전시를 하는 것에 큰 관심을 갖지 않기도 하는데 전시는 내게 작업의 클라이맥스라 할 수 있다. 사람들이 내 작품을 봤을 때 비로소 모든 작업이 마무리됐다는 기분이 든다. **B** 에디터/ 김영재

Man wearing dark glasses, texting with his jacket over his arm, 2013

'워킹(Walking)' 시리즈의 LED 설치 작품과 신사동의 행인들을 주제로 한 페인팅 작품